

## 양계업의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오 세 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최근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선진국에 비한다면 아직 개선점이 많이 있다. 현재의 양계업이 비약 성장한 동기는 우연이 아니라 과거 10여년간 학계와 업계가 매월 모임을 갖고 산학협동의 노력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지나간 전철을 밟지 말고 지름길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전을 거듭해야 할 우리의 양계업은 금년 사료값의 앙등과 사료품질저하, 소비위축, 생산과잉 등의 요인으로 양계업이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큰 타격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황은 과거에 유례없는 불경기로서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불경기의 폭이 짧았으나 현재의 불경기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74년 6월, 7월에 가서야 풀리지 않을가 생각한다. 과거에도 2~3년씩 되풀이 되는 수난기에도 불구하고 양계업은 계속 발전을 했다.

그러므로 고도의 과학적 기술과 합리적인 경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난국을 타개해야 하겠다. 이것이 해소될때까지는 우리 모두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소득증대로 인하여 양계업은 발전할 것이며 또 발전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불경기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1. 사료값의 앙등에 따른 사료품질 문제

정부에서 현재 사료값 인상을 억제 시키고 있으나 사실은 인상이나 다름없다. 품질면에서 현

저하게 저하했기 때문이다.

### ① 영양적인면, 항병적인면,

질병문제도 다른 측면에서 사료품질의 저하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사료값의 앙등으로 인해서 영양제첨가, 항병제를 넣지 않고 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병아리 숫자는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영양제 판매는 오히려 줄어 들었다.

첨가제의 사용은 부로일러의 원가면에서 15% 정도 되어야 한다.

### ② 국내어분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정책상 의화절약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사료공장에서 국내 어분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제조 과정을 보면 자연조건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 어분을 모래위에 말리기 때문에 우천시의 작업상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여름에 파리가 모이므로 파리를 죽이기 위해 농약을 뿌린다는 말이 있다. 농약을 뿌렸을 경우 그것을 먹은 병아리나 닭이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있다. 국산어분으로 대체할 바에는 좀더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 하겠다.

### ③ 유박류 제도의 불실.

유박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양시험에서 20%를 넣어도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20%를 넣었더니 성장이 되지 않았다. 제조면에서 불충분 했던 것이다. 밀기울은 물론 탈지강 맥강까지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간혹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왕겨를 곱게 부셔서 사료에 채운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다만 양제인 스스로가 협조하여 타개해 나가야 할 뿐이다.

한편으로는 사료문제에 앞서 환경면에서 가속화된 질병의 피해가 아닌가도 볼 수 있다.

### 2. 생산과잉 문제

대한양계협회에서 조사한 통계숫자로 볼때 오히려 작년보다 생산이 증가 하였다.

### 3. 소비위축

축산물 소비의 위축현상은 국제정세와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국내의 최근 학원문제까지도 결부된다고 볼 수 있고 김장철로 인한 계절적인 변동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요즘 닭소가가 두당 10만원씩 떨어졌고 돼지가 6천원씩 떨어졌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엔화절하로 인한 매일수출에 문제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로 보아 소비위축이 더 가속화하고 장기화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불황의 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발전적인 양계업계를 위한 당면한 개선책을 다음에 기술코자 한다.

### 1. 국내 육종개량사업의 촉구와 장려

61년부터 외국계 도입으로 매년 외화유출이 \$60~80만\$(2.4~3.2억원)이며 각종 질병까지 물어오고 있으며 외화 소비량과 질병피해는 급증추세에 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국립종축장 및 시험장은 가일층 노력하고 민간종계장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종계를 계속 육성해야 한다. 수입계의 기대는 금년부터 더 기대할 수 없다. 도입숫자는 20% 이상이 줄었지만 실제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 2. 종계등록과 부화장 정비

현재 전국 부화장 수는 296개소로서 천만개를 입란할 수 있는 부화능력이다. 부화기가 있는대로 다 돌린다고 할때 어마 어마한 숫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대란 1개에 10원 중소란 8원정도인데 외국계를 도입한 사람들은 그래도 국산계보다는 낫겠지하는 의미에서 다소나마 기대를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부화장수는 큰 300여개소중 정확한 종계로서

부화하는 곳은 불과 30%이며 그것조차 수요급증되면 무질서한 교잡란을 생산 공급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계등록을 철저히 실시하여 그곳만 부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비위생적인 곳은 폐쇄조치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계가 단결해야 하겠다. 협력을 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겠다. 누구의 잘못에만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단결하여 해결해야할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고 협조해야 하겠다. 아직 법적인 제재나 근거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 뒷받침을 가질런지 모른다.

얼마전 서울 경기일원의 부화장 97군데를 돌아 보았다. 위생적으로 잘된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비위생적인, 전근대적인, 소독은 생각도 못하는곳도 있었다. 이런곳은 파감하게 정비해야 하겠다. 이런 곳에서 나온 것은 우리 양축가가 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정비될 것이다.

종계등록은 현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화장 등록은 허가제로 하여 매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종계와 실용계의 품질을 확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그리하여 능력이 우수한 실용추 생산 공급과 개란성 질병 및 평면적 감염에 의한 질병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생산능률 향상과 수익성의 증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3. 강력한 생산조절

생산량의 다소를 가름하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며 생산조절은 협력조직을 통하여 부화업자나 사육자, 소비자간에 제약체계가 이루어져 유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 4. 소비확대의 노력

소비확대의 선전에 앞장을 서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은 아울러 유통관계에 까지도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

소비확대와 촉진을 위해 위생처리, 동급판매, 도체해체판매, 요리다양화, 영양적인식 등이 필요하다.

### 5. 유통체계의 개선과 품질관리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중간상인들에게 농락을 너무나 당해왔다. 선진국에서는 계열화하고 분

업화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생산자들이 지역적으로 협력을 하여 직접 판매개선을 설치하고 유통과정을 단순화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

**6. 경영조직의 체계화와 협력조직 운영의 합리화**

개인기업경영과 달리 사회적 견지에서는 협동조직 체계에 의한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분야도 각각 단체조직을 갖추어 재료를 공동구입하고 생산물은 계통출하하며 공동방역, 시설의 공동이용, 기술의 공동개발, 생산비 조달 등을 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며, 유리한 판매를 할 수 있고 자본이용을 극대화하여 유리한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양계업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 위생, 사양등 기술면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경영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아울러 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협력을 해야 한다.

**7. 양계 진흥법**

품종개량을 위한 육종문제, 유통개선, 사육자의 보호를 위한 안정기금 설치등에대한 양계 진흥법이 필요하다.

특히 양계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때일수록 질병관계, 방역관계, 사료이용관계도 문제려니와 유통체제의 확립등 법적제재와 아울러 촉진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안정기금의 설치문제는 사료(80만 ton)에다 50 전씩을 붙여서라도 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약 8억 추정)

과학은 평상시 보다는 전쟁시에 발전할 수 있다. 우리의 현재 불황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스스로가 협력해서 우리의 사업을 소비확대, 생산조절, 유통개선, 안정기금설치 등으로 해결해야 하겠다.

그러나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려면 굳은 신념과 인내가 필요하며 창의와 연구개발 등의 노력은 물론 경영의 협력이 중요하다.

양계업계의 번영 발전은 우리마음과 몸에 달려 있다. 추, 성패는 바로 나 자신에 달려있다.

삼성케이지

사료 첨가제  
예 방 제  
치 료 제  
백 독 제  
소 독 신  
약

신속배달발송

대한양계협회 전남지부  
광주지구 부로일러협회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동 47-8  
(대장식유 주유소 앞)  
TEL 3-1328

삼성가축약품상사

주식회사 유한양행  
대한신약공업주식회사  
대성미생물연구소  
한국화학자주식회사  
태평케미칼주식회사  
SF과학사료공사  
세광양행  
각종가축약품

전남대리점